

경영학 교육에 있어서의 가상강의 도입과 그 효과*

- 숙명여대 국제마케팅 과목의 경우 -

김 주 현**

본 연구에서는 1999학년도 2학기에 숙명여대 경영학부에 개설되었던 국제마케팅 가상강좌를 중심으로 그 개요를 소개하고 수강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가상강의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거꾸로 말해 학생들이 수강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가상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강의실에 접속하여 수강하는 학생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경영학 교육에 있어 가상강의가 중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자율성으로 인해 강의실 접속과 수강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많은 가상강의의 경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생들은 가상강의라 하더라도 담당교수와 강의실에서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발표와 토론이 중요시되는 경영학 교육의 경우 학생들의 선호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표와 토론의 장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로 가상강의에 의해 진행되던 발표 및 토론을 위한 출석수업 시간을 별도로 갖거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서 언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각 분야에 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한국에서도 기존 강의의 보완수단으로서든 기존 강의를 대체하는 것이든 인터넷을 활용하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초부터는 교육부에 의해 가상대학 시범운영기관이 선정되어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의 통과로

* 본 연구는 숙명여대 1999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형태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통신기술이나 통신체계에 기초한 교육형태의 발전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교육부 1997 : 한국방송대학교 1998). 제1단계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통신교육(correspondence education)이고, 제2단계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대중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며, 제3단계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가상교육(virtual education), 혹은 상호작용적 원격교육이다. 최근 각 대학과 정보통신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연합체(consortium)를 구성하여 기존 재학생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상교육(virtual 또는 cyber education)이다.

대학 과정의 가상교육을 대학 재학생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 분야의 하나는 바로 경영학이다. 일반인의 경영학 관련 교육 수요도 클 뿐 아니라 대학 재학생의 경영학 수요 역시 복수 전공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가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대학이 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가상 MBA 과정이 도입되었거나 도입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공 교수들은 리포트나 질의응답 등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의 전체를 가상 공간에서 실시하는 가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흐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숙명여대에서 1999학년도 2학기에 가상강의로 진행되었던 '국제마케팅' 과목을 중심으로 가상강의의 개요를 소개하고,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가상강의의 개략적인 효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영학 교육에 가상강의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경영학 교육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는 동시에 효과적인 경영학 교육에 대한 논의의 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가상교육의 일반 현황

1) 가상교육에 대한 일반적 고찰¹⁾

(1) 원격교육의 개념 및 정의

가상교육은 상호작용적 원격교육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원격교육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 교육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기관 설비기준과 운영방안 연구, 1999, pp. 16-27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982년 국제통신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rrespondence Education)의 명칭이 국제원격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로 바뀌면서부터였다. 대표적인 원격교육학자들의 원격교육에 대한 정의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기본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적 측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Rumble & Harry 1982; Keegan 1986; 1996). 즉, 원격교육이 일반적인 교육방법과는 달리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 원격교육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과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 비교를 통한 원격교육의 특성을 파악하는 측면, 마지막으로 원격교육의 진행되고 운영되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원격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중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강조하는 측면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교육에서 거리 개념의 '원격'과 교육 수단으로서의 '매체'를 강조하는 정의들이 있다. Delling(1987)은 원격교육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적절한 기술적 매체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학생과 교사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자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함은 물론, 교수자료를 선택하고 교훈적으로 설계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의들은 모두 원격교육의 기본적 특성을 교사-학생간에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거리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들이 매체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원격교육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원격교육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과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들을 살펴보면, 원격교육은 자학자습이 체계적으로 조직된 형태(Dohman, 1967)로서 학생상담, 학습 자료의 준비, 장학 등의 활동이 일단의 교사들에 의하여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는 원격교육의 핵심을 자학자습으로 보고 있는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들은 원격교육이 교사와 떨어져 배우게 되는 학생들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자학자습의 형태를 띠며, 이 자학자습을 도와주기 위한 원격교육의 산업화된 교수-학습 과정과 조직적 지원 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원격교육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의들이 있다. Garrison & Shale (1987)은 원격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이 대면접촉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였다. 다른 학자들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원격교육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Barker et al. 1989; Simonson & Schlosser 1995; Holmberg 1977 등).

넷째, 원격교육을 다른 교육 형태와 비교하면서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냄으로써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원격교육학자는 Keegan(1986; 1996)이다. 그는 여러 원격교육에 관한 정의들을 분석하면서 원격교육의 새로운 정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즉, 교사와 학생간의 반영구적 분리, 자학자습이되 독학과 달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며 형식을 갖춘 교육, 기술적 매체의 활용,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을 한데 모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격교육의 역사

원격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매개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술공학, 특히 통신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오면서 발달하여 왔다. 원격교육의 발달은 크게 3세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제 1기는 우편제도를 이용한 통신교육의 시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 확대를 강조하였고, 제 2기는 방송 등 대중 전파매체를 이용한 산업화된 원격교육의 시대로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면서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였으며, 제 3기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상호작용적 원격교육, 또는 가상교육의 시대로 원격교육환경에서 교수-학습 활동의 질적 향상을 보다 강조하였다.

① 제 1기

제 1기의 서신을 이용한 통신교육은 멀리 플라톤이 디오니시오스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가르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고, 동양의 경우에도 중국학자들 사이의 서신을 통한 논변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현재 원격교육의 기반이 된 통신교육은 1833년 스웨덴에서 통신을 통한 작문 교육에서 시작하였다(Holmberg 1986). 1840년 영국에서는 피츠만(Issac Pitmann)이 속기 교육을 통신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1843년에 통신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때의 속기교육은 일주일을 단위로 하여 속기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우편으로 배달한 후 공부한 내용을 다시 받아 피드백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조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통신교육이 스웨덴과 영국, 미국 등에서 발달하였다(Holmberg 1986).

보다 조직적인 통신교육은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시작한 어학 통신 교육 강좌에서 시작하여 스웨덴, 영국, 미국 등으로 발달하였으며, 이 때는 통신교육만을 본격적으로 제공한 기관에서부터 기존 대학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통신교육을 제공한 형태에까지 다양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18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에딘버그와 런던 등에서 통신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 1880년-1890년 사이에 시카고 대학과 위스컨신 대학 등에서 대학 확장 프로그램으로 통신교육부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렇게 발전한 통신교육은 교통의 발달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더욱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갔다. 20세기 초 1차대전을 전후로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통신교육이 전통적 면대면 공교육을 대신하는 형태로 활용되었다. 최초의 원격교육대학으로 기록되고 있는 남아공대학(University of South Africa, UNISA)은 1946년 기존의 전통적 대학교육에 통신교육 체제를 병행하였고, 1951년이 되어 통신교육을 통하여 학위 수여가 시작되어 남아공의 대학 교육의 기회 확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1900년대 들어오면서 통신교육의 대상은 성인에서 고등학교 학생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우편제도를 통한 통신교육의 특성은 인쇄교재를 이용하여 실용적인 기술교육이나 어학 등을 교육내용으로 한 성인 중심의 보완교육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교육기관에서 학습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대안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의 원격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하였으며,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동을 대상으로 하여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데에서 개방교육에의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

② 제 2기

제 2기의 원격교육은 방송 등의 대중매체가 널리 이용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대중 전파매체의 발전은 통신교육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원격교육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편통신제도가 값싸고 이용이 편한 대신 느리고 개별적인 정보전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이 한정된 반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는 대량의 정보를 다수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전화의 출현으로 대중 전파매체의 일방성을 보완하는 기술도 갖추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원격교육은 우편을 이용한 인쇄교재는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전파매체, 전화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각 매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중 전파매체가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라디오의 경우 1920년 이후, 텔레비전의 경우 1937년 이후이나 본격적으로 원격교육에 이용된 것은 1960년 이후이다. 특히 1969년 영국 개방대학의 설립은 대중 전파매체를 이용한 원격고등교육의 발전을 가지고 와서 세계 각 나라가 방송학교, 개방학습센터, 방송대학, 개방대학 등의 이름으로 원격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세계의 대표적인 원격교육기관인 영국 개방대학의 경우 라디오는 1970년대 인쇄교재를 보완하는 청각매체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후 오디오 카세트와 함께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BBC와 협조하여 개방대학의 또 하나의 교육매체로 제작하여 영상제공 매체인 비디오와 함께 보완적인 원격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 개방대학과 같은 대중 전파매체의 활용형태는 원격교육기관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으나 일본 방송대학 등과 같이 주 교육매체로 방송을 이용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이는 방송매체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한 것으로, 오디오와 비디오의 발전과 함께 원격교육의 다양화와 교육방법의 개선을 가지고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원격교육에서 대중 전파매체가 가진 일방적 정보전달의 기능은 또 다른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극복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방송매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원격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으며, 특히 우편물을 통한 원격교육의 보조가 될 수 있는 생생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로써 원격교육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개방교육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제 3기

정보통신공학의 발전은 인쇄교재와 대중 전파매체를 사용해 온 원격교육의 방법과 역량을 보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 3기의 상호작용적 원격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실

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원격 교육은 부족한 면대면(face-to-face)의 상호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였으며, 이제 그 필요는 정보통신기술로 충족되기 시작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원격교육에서 상호작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테크놀로지는 뉴미디어로 지칭되는데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컴퓨터 매개통신,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전, 통신 위성, 각종 원격 통신회의체제 등이 있다.

각종 정보통신매체들은 세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각 학습자의 가정까지 가져다주어 학습자들은 전문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간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왔으며, 평생학습사회가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정보통신공학의 발전은 원격교육의 교재를 보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활용되게 하였으며, 동시에 열린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개발한 인쇄교재와 방송 매체에 기반하여 고등교육에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앞장서 온 영국의 개방대학은 1980년대부터 컴퓨터 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 원격교육 방식을 시도하여 왔으며, 개별화된 학습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왔다. 유럽의 원격교육 기관들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쇄교재와 함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패러대학은 주로 인쇄교재에 의존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CD-ROM이나 인터넷 등 첨단매체를 교육에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외 유럽에서 특히 발달한 사설 원격교육기관들은 위성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왔으나 최근 컴퓨터매개 통신 체제와 원격음성강의, 원격영상강의 체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힐쯔(Hiltz, 1986)가 '토론, 강의, 시험 등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매개통신을 사용하는 형태로써 '가상수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이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 혹은 시간을 초월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가상수업에서 시작한 새로운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은 가상학습, 가상학교, 가상대학 등에 대한 교육 체제의 변화 요구로 연결되어왔다. 특히 인터넷 등 컴퓨터매개통신 체제가 발달하여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쌍방향 의사소통의 길이 뉴미디어를 통하여 가능해지면서 미래 원격교육의 모습으로 가상학습환경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학교나 가상대학 등의 원격교육기관들은 기존 교육체제나 1, 2기의 원격교육체제에서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적용시킨 교육체제의 가상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가진 대안적 교육형태라는 생각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컴퓨터매개통신 체제에 기반하여 쌍방향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원격교육 또는 사이버 가상교육이 증대하고 있으며, 가상대학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캠퍼스를 설립하여 직장을 가진 성인들이 대학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기존 원격대학들도 인터넷 수업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원격교육기관인 가상대학이 나타나 미국의 서부주지사대학, 온라인 가상대학 등이 설립되었다.

제 3기의 쌍방향 원격교육체제라고 할 수 있는 가상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은 첨단 컴퓨터와 통신망의 발달, 하드웨어와 인간과의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달, 더 나아가 가상현실의 기술적 발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상교육 체제에서 학생은 원격통신을 이용하여 세계 어디에서든 학교에 출석할 수 있다. 가상교육체제는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교육을 자유롭게 하는 것 외에도, 시간적 제한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상적인 교육은 각 개인이 개인의 속도에 맞춰 학습하는 것이다. 가상교육 체제가 구성하는 가상학습환경은 이러한 교육의 이상에 다가서는 개념이다.

2) 가상강의의 국내 현황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 가상강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2월 교육부 주도로 가상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대학과 실험운영대학을 선정하면서부터이다. 이들 대학은 2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정식 가상대학(원격대학) 설립과 운영을 준비중이다. 아울러 1999년 8월 기존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선포됨으로써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표 1> 교육부 지정 가상대학 시범 및 실험운영대학

시범운영대학		실험운영대학	
단독형	컨소시움형	단독형	컨소시움형
서울대	열린사이버대학 (OCU)	서강대 동국대 충남대	한국온라인가상대학 한반도가상캠퍼스 한국가상대학연합
숙명 여대	서울사이버 디자인대학 부울가상대학	영진전문대 한국의국어대 경상대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주: 열린사이버대 - 성균관대, 고려대, 공주대, 부경대, 강릉대, 부산외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 (삼성SDS, 중앙일보)
 서울사이버디자인대학 - 흥익대, 국민대 (삼보컴퓨터, 쌍용정보통신, 솔빛미디어)
 부울가상대 - 동명정보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현대정보기술)
 한국온라인가상대학 - 중앙대, 경기대, 대전산업대, 공주전문대 (나우콤)
 한반도 가상캠퍼스 - 숭실대, 서울여대, 인제대, 한림대, 금오공대 (LG)
 한국가상대학연합 - 경북대, 전남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광운대, 대구대, 경성대, 한국방송대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 강원대, 전북대, 연세대, 경남대, 건국대, 계명대, 관동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삼육대, 상명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한남대, 한동대, 호남대, 호서대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SK텔레콤)

가상대학은 주관 주체에 따라 세 가지 형태, 즉 독립형 가상대학, 대학부설 가상대학, 컨소시움형 가상대학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우리 나라의 경우 원격교육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형 가상대학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부설 가상대학은 기존의 대학에서 별도로 조직을 두어 자체적으로 원격교육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이 형태를 따르고 있

다. 컨소시움형은 여러 대학이 연합하거나 기업체와 협력하여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KCU(Korea Cyber University), OCU(Open Cyber University), 한국 온라인 가상대학, 한국 가상 캠퍼스 등이 이에 속한다.

1998년 2월 교육부가 선정한 시범운영대학 및 실험운영대학도 단독형과 컨소시움형으로 구분되는데 단독형은 위에서 언급한 대학부설 가상대학의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시범 및 실험운영대학으로 선정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는 많은 대학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부설 형태의 가상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표 1>은 교육부가 각 대학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정한 가상대학 시범운영대학 및 실험운영대학을 보여주고 있다.

3. 숙명여대 국제마케팅 과목의 가상강의 개요

1) 숙명여대의 가상강의 일반현황 개요

숙명여자대학교는 국내 대학으로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가상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온 편이다. 1997년부터 약료전문가과정에서 원격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998년 교육부로부터 가상대학 프로그램 단독운영 시범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대학의 주요 정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숙명여대의 가상교육은 1998년 5월에 정식 발족된 가상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재학생 중심이 아닌 직장인 대상의 사회교육 과정 중심으로 출발하였고 현재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1999학년도에 시범적으로 학부 과정에 교양 4과목, 전공 2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주)두루넷과 '숙명-두루넷 원격대학'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가상교육센터를 별도의 원격대학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격대학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표 2> 및 <표 3>은 숙명여대에서 현재 개설하고 있는 일반인 대상의 사회교육 과정(전문가재교육)과 재학생 대상의 학부 과정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표 2> 숙명여대 일반인 대상의 사회교육 가상강좌 (2000년 1학기)

과정명	과목수
약료전문가과정	6
영어교육전문가과정	5
음악치료교육과정	2
아동교육전문가과정	6
임상영양전문가과정	4
사이버교육전문가과정	5
항장미용전문가과정	5

<표 3> 숙명여대 학부 재학생 대상의 가상강좌

과목명	우리시대의 문화읽기	화학과 생활	전산개론
구분	전공	교양	교양
	교육심리학	생명과학의 이해	국제마케팅
	교양	교양	전공

2) 국제마케팅 과목의 가상강의 개요

1999학년도 2학기에 숙명여대 경영학부에서 개설되어 필자가 담당한 국제마케팅 과목은 정규 수업 2개 반(수강생은 각각 60명 및 40명)과 가상강의 1개 반(수강생 120명)이었다. 이 중 가상 강의도 숙명여대 재학생들이 정규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과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 가상강의의 기본 성격

앞의 '가상교육에 대한 일반적 고찰'에서 살펴 본 대로 가상강의는 '상호작용적 원격교육'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학부 국제마케팅 과목의 경우 일반인 대상의 사회교육 과정과 달리 '원격'의 개념은 강조되지 않는다. 정기 학기 중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이기 때문이다.²⁾ 그러나 교육수단으로서의 '매체'가 강조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상호작용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학자습이 증시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Delling(1987), Dohman(1967), Garrison & Shale(1987) 등의 원격교육 개념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2) 강의 시스템의 기본 구성

가상강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로 구성된다. 텍스트는 일반 강의실에서 OHP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요약 형태의 기본 텍스트와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 강의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기본 텍스트의 매 슬라이드는 상세한 강의록의 해당 부분과 링크되어 있다. 오디오는 담당교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한 것이며 비디오는 매 강의 시간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녹화한 것이다. 강의 녹음과 녹화를 포함한 이들 기본 시스템은 1999학년도 학기 방학 중에 숙명여대의 가상교육센터에서 제작되었다. 한번 제작된 강의자료(오디오, 비디오, 텍스트)는 계속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노력 없이 2회 이상 강의가 가능하다.³⁾

가상강의는 주 단위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으며 실제 강의시간은 1주 분량(3학점 150분 수업 기준)이 대략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이다. 강의 자체가 일방향(one-way)으로 이루어지고 여담이나 농담이 제한되며 강의 도중 질의응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정도 시간이면 일반 수업의 1주 분량의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된다.

가상강의의 수강생들은 가상강의실에 언제든지 접속하여 파워포인트 파일의 기본 텍스트를 보면서 녹음 강의를 듣고 수시로 해당 상세 강의록을 볼 수 있다. 강의록은 PC 화면으로 볼 수도

2) 그러나 계절학기의 경우 가상강의 한 과목만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교육의 개념이 강조되고 이러한 특성이 수강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1999년 겨울 계절학기에는 지방에 내려간 학생과 해외 인턴 교환학생이 수강한 사례가 있다.

3) 필자는 1999학년도 2학기에 사용한 강의내용을 수정 없이 겨울 계절학기 가상강좌에 사용하였다.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모두 부분적인 수정도 가능하다.

있고 출력하여 볼 수도 있으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담당교수가 제작한 복사본을 구입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3) 강의 시스템의 기타 요소

강의를 듣고 보는 기본 시스템 외에 가상강의 시스템은 공지사항, 질의응답(Q&A), 열린게시판, 세미나실, 채팅룸, 편지함,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공지사항은 담당교수가 행정적인 사항(시험일시, 리포트 등)을 수강생들에게 알리는 공간이며, 질의응답은 강의내용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열린게시판은 담당교수 및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자료실은 담당교수 혹은 학생이 참고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생이 올린 자료는 담당교수의 검증을 거친 후에 학생들에게 공개된다. 편지함은 학생과 담당교수, 혹은 학생들 사이에 개인적인 질문 및 연락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존의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가상강의 시스템에 별도의 편지함이 마련되었다. 세미나실과 채팅룸은 활용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강의실 접속회수 및 접속시간, 그리고 질의응답, 게시판, 자료실 등에 글을 올린 회수 등은 모두 시스템 기록에 남으며, 이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강의에서 하는 출석확인을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시스템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4) 강의 진행

가상강의의 기본 내용은 일반 강의실에서 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강의를 포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질 뿐이다. 다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든 수강생들이 출석할 수 있는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여 강의실에 직접 출석하여 치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직접 대면은 시험시간 외에는 공식적으로 없게 된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중간고사 전에만 차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의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며 강의진행 및 가상강의 시스템 상의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있었다.

사례를 분석하는 리포트는 3차례 부과하였는데 원칙적으로 담당교수나 조교실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것이 일반화될 경우 담당교수가 리포트를 모두 출력하여 검토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강생들은 LAN으로 연결된 교내 PC를 이용하거나 모뎀으로 연결된 자택 PC를 통해 가상 강의실에 접속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주의 강의는 물론 지난 강의도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상으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반복학습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시간 출석확인을 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학습에 익숙해지지 않고 접속을 게을리 할 경우 이를 단 시간 내에 보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4. 가상강의의 효과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가상강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9학년도 2학기에 국제마케팅 가상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말시험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7

<표 4> 응답 학생의 특성 분포

학년			과목의 성격			가상강의 수강 경험			직장/아르바이트 (낮 시간)		
구분	도수	비율 (%)	구분	도수	비율 (%)	구분	도수	비율 (%)	구분	도수	비율 (%)
1학년	2	1.9	주전공	43	40.6	유	21	19.8	유	42	39.6
2학년	17	16.0	복수전공	20	18.9						
3학년	51	48.1	부전공	20	18.9	무	85	80.2	무	64	60.4
4학년	36	34.0	일반선택	23	21.7						
계	106	100.0	계	106	100.0	계	106	100.0	계	106	100.0

주: 각 항목마다의 무응답 1명

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응답 학생들의 학년 및 전공 구분 등은 다음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과목이 교양이 아닌 전공이란 점에서 짐작되듯이 대부분의 수강학생들은 2-4학년이었으며 특히 3-4학년이 많았고 1학년은 2명에 불과하였다. 이 과목이 수강 학생들에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전공이 41%로 가장 많았고 복수전공과 부전공 과목이라는 응답도 각각 19% 정도가 되었다. 한편 99학년도 2학기 이전에 가상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 정도가 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낮 시간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교에 나오기 곤란한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40%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가상강의 수강 행태

학생들의 가상강의 수강 행태를 도구적 측면과 수업 참여도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우선 도구적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은 주로 교내 PC실에 있는 PC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4.3%), 그 다음이 집에 있는 PC(34.0%), PC방이나 인터넷 카페(10.4%)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강의록은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한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61.9%), 가

상 강의실에 접속하여 on-line 상태로 활용하거나(25.7%) 저장한 후 PC 모니터를 통해 활용한다는 응답(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조). 공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매체로는 텍스트(text) 형태의 강의록(36.8%), 오디오(audio)형태인 담당교수의 강의 녹음(28.3%), 요약 텍스트라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화면(10.4%)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이 세가지가 큰 차이 없이 모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4.5%였다 (<표 7> 참조).

<표 5> 주로 활용하는 PC의 위치

구분	집	학교	PC방/인터넷카페	기타	계
응답자수	36	47	11	12	106
비율(%)	34.0	44.3	10.4	11.3	100

주: 무응답 1명

<표 6> 강의록 활용 형태

구분	응답자수	비율(%)
강의실 접속 후 on-line 상태	27	25.7
저장 후 PC 모니터	4	3.8
프린터로 출력하여	65	61.9
기타 (복사/제본 등)	9	8.6
계	105	100

주: 무응답 2명

<표 7> 강의 매체별 도움 정도

구분	응답자수	비율(%)
담당교수의 강의 녹음 (audio)	30	28.3
파워포인트 화면 (요약 text)	11	10.4
강의록 (상세 text)	39	36.8
큰 차이 없이 모두 도움됨	26	24.5
계	106	100

주: 무응답 1명

한편 수업 참여도 측면에서 볼 때 매주 정기적으로 가상 강의실에 접속하여 모든 강의 내용을 다 들었다는 응답은 12.4%로 그리 많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접속하지는 못하고 몰아서 한 경우도 있었지만 강의내용은 다 들었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강의 일부분을 듣지 못하거나(15.2%), 접속을 게을리 하여 강의의 상당 부분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14.3%)도 30% 정도가 되었는데 (<표 8> 참조), 이는 강의실 출석이 의무가 아니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가상강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공이 갈 수도 있지만 가상강의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 스케줄대로 듣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자주 있는 편이다'라는 7점 척도 문항의 응답 결과가 평균 4.76인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표 8> 강의 접속 및 수강 정도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주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모든 강의 수강	13	12.4
비정기적으로 몰아서 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강의 수강	61	58.1
강의 내용 중 일부분을 수강하지 못함	16	15.2
접속을 게을리 하여 강의의 상당 부분을 수강하지 못함	15	14.3
계	105	100

주: 무응답 1명

<표 9> 강의 참여도 및 시간 투입 정도 (7점 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가상강의에 일반 강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4.11	1.30
강의 스케줄대로 듣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자주 있다.	4.76	1.55
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많았다.	3.82	1.58

주: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7은 '전적으로 그렇다'

한편 가상 강의실 접속과 수강 이외의 수업 참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질의응답(Q&A), 게시판, 편지함 등의 이용 정도도 아직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상당히 많이 이용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고, 1-2회 정도가 58.1%,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직 가상강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경영학 교육에 있어 토론과 질의응답이 매우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직접 경험에 의하면 일반 강의실 강의보다는 가상강의에서 질문이나 의견제시와 같은 참여가 훨씬 많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2) 가상강의의 효과 및 만족도

① 개별 변수의 분석

가상강의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를 들었다 (86.8%, <표 10> 참조).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다는 점이 가상강의의 가장 큰 장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장점이 학습효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학습이 곧 '태만'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학습효과의 증진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1.9%)와 '가상공간을 통한 교수-학생간의 활발한 의사소통'(0.0%)을 가상강의의 장점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매우 적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상호작용적 특성이 원격가상교육의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이것은 가상교육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지 일반 강의실 강의에 비해 갖는 큰 장점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응답한 학생이 있었고,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강의실 강의보다는 가상강의에서 질문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가상공간에서의 질문을 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표 10> 가상강의의 장점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92	86.8
반복청취(학습)가 가능하다.	12	11.3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1.9
게시판이나 편지함 등을 이용하여 교수,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0	0
계	105	100

주: 무응답 2명

<표 11> 가상강의와 일반강의의 효과 비교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일반강의와 비슷하다.	61	58.1
일반강의보다 효과가 좋다.	37	35.2
일반강의보다 효과가 나쁘다.	7	6.7
계	105	100

주: 무응답 2명

일반강의와 비교해 볼 때 가상강의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이 일반강의와 비슷하거나(58.1%), 일반강의보다 효과가 좋다고(35.2%) 응답하였다. 일반강의보다 효과가 나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표 11> 참조). 이는 '가상강의가 일반강의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7점 척도의 문항에 평균 3.85의 응답을 보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상강의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표 12> 참조). 7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5.12, 가상강의 확대 희망이 5.36, 가상강의 이수강 계획이 5.01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상강의에 대한 수강학생들의 반응이 비교적 호의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가상강의 수강이 PC 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점 척도에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4.74로 나타나 PC 활용능력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상강의는 원칙적으로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5), 한 학기에 1-2회 정도는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4.61). 가상강의를 집에서 수강하는 경우 속도나 통신요금도 가상강의의 불편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4.79), 수강 도중 기술적인 문제도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4.21)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표 12> 가상강의의 효과 및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1. 가상강의는 흥미로운 수업 방법이다.	5.08	1.39
2. 가상강의는 일반 강의보다 질문하기가 심리적으로 더 편하다.	4.94	1.59
3. 가상강의가 더욱 (다른 과목으로) 확대되면 좋겠다.	5.36	1.61
4. 나는 가상강의를 수강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5.09	1.53
5. 내용을 이해하기가 일반 강의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3.85	1.68
6. 나는 가상강의 수강을 통해 전보다 PC활용능력이 향상되었다.	3.74	1.63
7. 나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상강의를 수강할 생각이다.	5.01	1.75
8. 나는 친구에게 가상강의 수강을 추천하고 싶다.	4.78	1.62
9. 전반적으로 나는 이 가상강의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12	1.32
10. 담당교수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은 불편하다.	4.55	1.82
11. 가상강의라 하더라도 한 학기에 1-2회 정도는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면 좋겠다.	4.61	1.94
12. 집에서 가상강의를 수강하기에는 속도나 통신요금 문제 등 불편한 점이 많다.	4.79	2.04
13. 가상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	4.21	1.93

주: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7은 '전적으로 그렇다'

② 변수간의 관계 분석

가상강의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상강의의 수강 경험, 학년, 전공, 수강(가상강의 접속)행태 등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족도는 <표 12>에 나타난 변수 중에서 '가상강의가 더욱 확대되면 좋겠다', '가상강의를 수강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상강의를 수강할 것이다', '친구에게 가상강의 수강을 추천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이 가상강의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등 5개 항목 응답의 평

균치를 사용하였다.

우선 가상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의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수강경험이 있는 집단(5.58)이 없는 집단(4.99)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p = 0.06$)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참조). 또한 가상강의 수강행태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강의내용을 모두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참조). 매주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모든 내용을 들었다는 응답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5.45인데 비해 접속을 게을리 하여 강의의 상당부분을 듣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4.61이었다. 그러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실 접속과 수강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관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의실 접속 및 수강행태를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가정하여 만족도와의 상관계수를 구해 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졌다 ($r = 0.1654, p = 0.09$).

한편 수강생의 학년이나 전공에 따라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어떤 유형이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결과 보고는 생략한다.

<표 13> 가상강의 수강경험에 따른 만족도 비교

수강경험 유무	응답 자수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 값	p 값
유	21	5.58	1.10	1.88	0.06
무	85	4.99	1.32		
계	106	-	-		

주: 무응답 1명

<표 14> 수강(접속)행태에 따른 만족도 비교

수강(접속) 행태	응답자수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모든 내용 수강	13	5.45	1.61	0.97 (0.41)
비정기적으로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내용 수강	61	5.13	1.30	
강의내용 일부를 수강하지 못함	16	4.96	1.22	
접속을 게을리 하여 강의의 상당 부분을 수강하지 못함	15	4.61	1.48	
계	105	-	-	

주: 1) 수강행태를 접속 및 수강 정도에 따라 1-4를 부여한 후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구하면 $r = 0.1654, p = 0.09$ 로 나타남

2) 무응답 2명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9학년도 2학기에 숙명여대 경영학부에 개설되었던 국제마케팅 가상강좌를 중심으로 그 개요를 소개하고 수강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앞으로 대학교육에 가상강좌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고, 특히 수요가 많은 경영학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경영학 교육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가상강의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강의가 흥미롭다는 인식은 아직 가상강의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은 일반강의와 객관적인 비교를 할만큼 가상강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응답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은 거꾸로 말해 그러한 자율성으로 인해 수강을 게을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강의 내용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0% 정도였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모든 강의를 수강했다는 응답은 12% 정도였다. 따라서 출석의무에 대한 부담이 적은 가상강의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자율적 학습동기 부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상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직접적인 문항과 간접적인 문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계적 유의성은 별로 없었지만 가상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강의실에 접속하여 수강하는 학생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향후 경영학 교육에 있어 가상강의가 중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수강에 임할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자율성으로 인해 강의실 접속과 수강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많은 가상강의의 경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학생들은 가상강의라 하더라도 담당교수와 강의실에서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출석(on-site)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일반 학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높을 것이다. 사례발표와 토론이 중요시되는 경영학 교육의 경우 학생들의 선호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표와 토론의 장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로 가상강의에 의해 진행되 발표 및 토론을 위한 출석수업 시간을 별도로 갖거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현재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으나 실시간(real time) 토론을 위해서는 조별이든 전체든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접속해야 한다는 것과 담당교수가 그만큼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는 점 등이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경영학 분야의 가상강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상강의의 개요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그 효과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수강학생들의 배경 등 강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상강의와 일반강의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설문조사 이외에 가상강의 시스템에 기록되는 학생들의 수강행태(강의실 접속 및 Q&A, 게시판, 편지함 등의 활용 빈도 등)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초기 시스템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그러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객관화, 일반화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탐색적(exploratory) 성격이 강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상강의에 대한 이해와 개략적인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강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가상강의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역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1세기형 첨단학교·가상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1997.
- _____,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기관 설치기준과 운영방안 연구," 199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상대학 강좌 심화운영 세미나," 1999. 7. 1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수부, "가상대학 강좌 운영 워크숍," 1999.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교육연구소, 「가상대학 (Virtual University)」, 1996.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교육연구소, 「방송대학 가상교육체제 설계」, 1998.
- Baker, B. O., A. G. Frisbie & K. R. Patrick, "Broadening the Definition of Distance Education in Light of the New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3(1), 1989, pp. 20-29.
- Delling, R. "Towards a Theory of Distance Education," *ICDE Bulletin*, 13, 1987, pp. 21-25.
- Dohman, G., *Distance Education*, DIFF, 1967.
- Garrison, D. & D. Shale, "Mapping the Boundaries of Distance Education: Problems in Defining the Field,"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1(1), 1987, pp. 4-13.
- Hiltz, S. R., "The Virtual Classroom: Using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s for University Teaching," *Journal of Communications*, 36(2), 1986.
- Holmberg, B., *Distance Education: A Survey and Bibliography*, Kogan Page, 1977.
- _____, *Growth and Structure of Distance Education*, Croom Helm 1986.
- Keegan, D., *The Foundations of Distance Education*, Croom Helm 1986.
- _____, *Foundations of Distance Education*, Routledge, 1996.
- Rumble, G. & K. Harry, *The Distance Teaching Universities*, Croom Helm 1982.
- Simon, M. & C. Schlosser, "More than Fibre: Distance Education in Iowa," *Tech Trends* 40(3), 1995, pp. 13-15.